



거짓말쟁이 마법사 안젤라 (초등 4학년)

파란자전거 | 김우정 글/ 김주경 그림



표지 탐색하기

책을 읽기 전, <거짓말쟁이 마법사 안젤라> 책 표지를 자세히 살펴봅시다.

1) 책 앞표지에는 어떤 모습이 그려져 있나요?

⇒

2) 책 앞표지의 제목 '거짓말쟁이 마법사 안젤라'를 보고 이 책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 것 같나요?

⇒

3) 책 앞표지의 그림과 책의 제목을 종합해 볼 때, 이 책에 대해 어떤 느낌이 드나요?

⇒

4) 책 뒷표지에는 다음과 같이 쓰여 있습니다. 이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호기심 때문에 종종 거짓말을 하다
인형이 되어 인간 세계에 보내진 안젤라.
미션은 거짓말하는 50명의 아이들 습관 고치기!
그러다 밥 먹듯 거짓말하는 강적 은사와 만나게 되는데...
과연 안젤라는 미션을 무사히 마치고,
마법의 나라 슈타인 성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안젤라에게 일어날 일을 상상하여 밑줄 친 부분의 물음에 답해 봅시다.

⇒



거짓말쟁이 마법사 안젤라 (초등 4학년)

파란자전거 | 김우정 글/ 김주경 그림

어휘력 쑥쑥 키우기

다음은 <거짓말쟁이 마법사 안젤라>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 (가) 엄마는 힐끔 안젤라를 쳐다보더니 이내 고개를 돌렸다.
- (나) 안젤라의 등 뒤에서 젼마가 부르르 떨며 말했다.
“으흐흐…… 언니, 나 추워. 이제 돌아가자.”
- (다) 집에 도착한 안젤라와 젼마는 빗자루를 탄 채로 창가에 멈춰서더니, 고개를 창문 안으로 빠죽이 들이밀고 엄마가 온 건 아닌지 집 안을 살폈다.
- (라) “어디 갔다 오는 거니?” / 깜짝 놀란 안젤라는 그 자리에 우뚝 서 버렸다.
- (마) 다람쥐 두 마리가 낮은 나뭇가지 위에서 등을 맞대고 앉아 꾸벅꾸벅 졸고 있는 게 눈에 띄었다.
- (바) 인간들은 피부색이 다양한 데다 차림새도 각양각색이어서 오가는 인간들만 구경하고 있어도 무척이나 신기하고 재미있었다.

1) (가)~(라)의 밑줄 친 낱말들은 흉내 내는 낱말입니다. 다음에서 이 낱말들의 뜻으로 알맞은 것을 찾아 그 번호를 쓰세요.

- ① 크고 거볍게 떠는 모양. ② 움직이던 것이 갑자기 멈추는 모양.
- ③ 거볍게 겹눈질하여 슬쩍 한 번 쳐다보는 모양.
- ④ 얼굴이나 물건의 모습만 한 번 슬쩍 내밀거나 나타내는 모양.

⇒ 힐끔 : 부르르 : 빠죽이 : 우뚝 :

2) ‘두드러지게 드러났다.’라는 뜻을 지닌 관용적 표현을 (마)에서 찾아 쓰세요.

⇒

3) ‘각기 다른 여러 가지 모양과 빛깔’이라는 뜻을 지닌 한자성어를 (바)에서 찾아 쓰세요. ⇨



거짓말쟁이 마법사 안젤라 (초등 4학년)

파란자전거 | 김우정 글/ 김주경 그림



독해력 쑥쑥 키우기

다음 <거짓말쟁이 마법사 안젤라>에서 발췌한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가) 안젤라는 나가기 전, 자신과 동생의 방에 각각의 분신을 만들어 자는 것처럼 꾸며 놓았다. 혹시나 엄마가 일찍 오더라도 책 읽다가 잠자리 간 걸로 속인 후, 엄마가 거실에 없는 틈을 타 살짝 방에 들어와 있으려고 했었다. 하지만 말괄량이에다 호기심이 넘쳐나고 거짓말도 곧잘 하는 안젤라의 성격을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엄마였다. 결국 자매는 진실의 의자에 앉아 오늘 일들을 죄다 고백하고 용서를 구해야 했다.

(나) “사……사실은, 저기 인……인간 세계에 다녀왔어요…….”

긴 고백의 시간이 끝나고, 풀이 죽은 채 방 안에 앉아 있던 안젤라의 귓가에 아버지가 방금 전에 한 말이 맴돌았다.

“아무리 호기심 때문이라지만 이번 일은 절대 그냥 넘길 수 없다. 내 수정 구슬도 훔치고 인간 세계에서 음식도 훔쳤다. 게다가 순진한 어린 동생에게까지 거짓말을 하게 하다니. 안젤라, 앞으로 네 빗자루는 절대 사용할 수 없다. 연구실 출입도 금지다. 이제부터 모든 일에 엄마와 내 허락을 받아야 한다. 제멋대로 행동하고 거짓말이나 하는 그 못된 버릇을 당장 고치도록 해라. 이제 반성했으면 방에 가서 암전히 있거라.”

1) (가)를 참고하여 ‘안젤라’의 성격을 써보세요.



2) (나)에서 ‘안젤라’의 아버지가 화난 이유를 파악하여 쓰세요.

⇒



거짓말쟁이 마법사 안젤라 (초등 4학년)

파란자전거 | 김우정 글/ 김주경 그림



독해력 쑥쑥 키우기

다음 <거짓말쟁이 마법사 안젤라>에서 발췌한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가) 며칠 동안 금단의 구역에 대한 호기심으로 밤잠을 설친 안젤라는 결국 불같이 타오르는 호기심을 억누르지 못한 채 또 다시 **영악스런 계획**을 짜냈다.

(나) “저기..... 어떻게 해야 아저씨가 가족을 만날 수 있죠?”

거원은 웃음이 나오려는 걸 꼭 참으며, 짐짓 슬픈 표정을 짓고 말했다.

“음, 내가 단지 몇 시간이라도 이 ㉠거울 속에서 나가 자유의 몸이 된다면 집으로 가서 그들을 만날 수 있을 테지.”

“어떻게 하면 아저씨가 거울 속에서 풀려나는데요?”

(다) “내 눈을 똑바로 보고 말하거라. 그게 사실이라면.”

아버지의 눈은 안젤라의 깊은 마음속까지 꿰뚫어보듯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다.

안젤라는 그런 아버지의 눈을 차마 바라보지 못하고 결국 울먹이며 말했다.

“사..... 사실은 오늘.....”

“그래, 짐마를 속여 금단의 구역에 가서 사악한 마법사를 만난 게로구나. 그로부터 들었겠지. 봉인을 풀려면 이 황금빛 독수리가 꼭 필요하다는 것을.”

(라) “대마법사 시벨리우스와 월머의 딸 안젤라는 마법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규칙을 깨뜨리고 정직과 믿음을 하찮게 여겼다. 금단의 구역에 들어가 사악한 마법사에게 속아 황금빛 독수리를 훔쳐 봉인을 풀려는 지극히 위험한 생각을 했다. 아직 어리다고는 하지만 자신이 저지른 일에 책임을 져야만 할 것이다. 앞으로 안젤라는 인형이 되어 인간 세계로 가서 거짓말을 일삼는 아이들을 돕도록 한다. 오십 명의 아이들을 정직하고 착한 아이로 변화시켜야만 마법의 나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다.

안젤라, 인간 세계에 사는 마린이 널 보호하고 거짓말하는 아이들이 있는 가정으로 보내 줄 것이다. 그곳에서 많은 것을 경험하고 또한 반성하고 오너라. 어서 떠나라.”

대법사 와이젤이 슈타인 성의 넓은 뜰에 모인 모든 마법사들과 아이들 앞에서 (

㉡) 말했다.

1) 다음 그림과 (다)의 아버지의 말을 참고하여, (가)에서 말하는 **영악스런 계획**이 무엇인지 쓰세요.

'안젤라'의 영악스런 계획



2) '거센'이 ㉠과 같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소재를 (다)에서 찾아 쓰세요.

⇒

--	--	--

--	--	--

3) 다음 그림과 (라)를 참고하여, '안젤라'가 (가)~(나)와 같이 행동하여 얻은 결과가 무엇인지 쓰세요.



4) (라)의 장면을 실감나게 표현하기 위해서 ㉡에 들어갈 어조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세요.

- ① 나직하게
- ② 위엄 있게
- ③ 투명스럽게
- ④ 무덤덤하게
- ⑤ 대수롭지 않게



거짓말쟁이 마법사 안젤라 (초등 4학년)

파란자전거 | 김우정 글/ 김주경 그림



독해력/사고력 쑥쑥 키우기

다음 <거짓말쟁이 마법사 안젤라>에서 발췌한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은서 엄마는 은서가 흔쾌히 승낙하자 인형을 쇼핑백 안에 넣고는 부엌으로 향했다. '엄마, 저예요. 제가 은서라고요. 진짜 은서는 저란 말이에요. 왜 절 못 알아보시는 거예요. 저, 인형이 돼 버렸어요. 흑흑흑..... 제발, 제발 다시 날 사람이 되게 해 줘, 안젤라. 정말 깊이 반성하고 많은 걸 깨달았어. 이제 다시는 아니, 평생 거짓말 같은 건 안 할게. 정말이야. 흑흑흑..... 난 이제 남의 집을 옮겨 다니다 언젠간 쓰레기통에 버려질지도 몰라. 흑흑흑.....'

그날 밤, 불 꺼진 거실 한쪽 구석에 놓인 쇼핑백 속으로 작은 손이 쑥 들어왔다. 작은 손은 울다 지친 안젤라의 모습을 한 은서를 들어 올렸다. 바로 은서 모습을 한 안젤라였다. 안젤라는 인형이 된 은서를 한동안 내려다보더니 차분하게 말했다.

"은서야, 정말 널 믿어도 되니? 늘 그렇게 말하고 또 아무렇지 않게 거짓말을 하잖아."

"안젤라. 믿어 줘, 제발. 기회를 주기만 한다면 새로 태어날 거야. 진실하고 정직한 아이로. 평생 이렇게 말도 못 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형으로 살고 싶지 않아."

인형이 된 은서는 굵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진심을 담아 말했다.

"좋아, 그럼 기회를 주지. 하지만 기억해. 난 네가 또 거짓말을 시작하면 다시 돌아 온다는 걸 말이야."

1) '은서'는 거짓말로 인해서 '안젤라'에게 어떤 벌을 받았나요?

⇒

2) 윗글에서 '은서'의 처지에 공감하며, 윗글에 드러난 '은서'의 마음이 어떠할지 상상하여 써보세요.

⇒



거짓말쟁이 마법사 안젤라 (초등 4학년)

파란자전거 | 김우정 글/ 김주경 그림



사고력/표현력 쑥쑥 키우기

다음은 <거짓말쟁이 마법사 안젤라>의 내용과 관련된 그림과 글입니다. 그림과 글을 자세히 보고 다음 물음에 답하세요.



1) '안젤라'가 부모님께 자꾸 거짓말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젤라, 사실 처음엔 나도 거짓말쟁이는 아니었어. 야단맞을 일이 생기면 너무 겁이 났어. 부모님의 기대가 커서 그랬는지도 몰라. 언니가 뭐든지 잘하니까 나도 당연히 그럴 거라고 말씀하시는 걸 여러 번 들었거든. 공부는 하기 싫고 놀고만 싶은데 언니처럼 칭찬받고 싶었어. 그래서 점수도 고치고 거짓말도 한 거야. 근데 안 그러려고 해도 이젠 안 고쳐져.”



2) '은서'가 부모님께 자꾸 거짓말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3) 여러분도 '안젤라'와 '은서'처럼 거짓말을 한 경험이 있다면 이를 글 또는 그림으로 표현해 보고, 거짓말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써보세요.

거짓말 했던 경험 표현하기

거짓말에 대한 '나'의 생각은?



거짓말쟁이 마법사 안젤라 (초등 4학년)

파란자전거 | 김우정 글/ 김주경 그림



정답과 해설

예시 답안은 모범 답안과는 다릅니다. 참고만 하시고 너그럽게 채점하세요. ^^

1쪽	1) (예시 답안) 끝이 길고 뾰족한 마법사 모자를 쓴 여자 아이가 보라색 구슬을 두 손에 받치고 있다. 그 뒤로 해골 모양이 조각된 바위산 위에 성이 있고 주변을 박쥐 두 마리가 날고 있다. 2) (예시 답안) 마법사인 안젤라가 거짓말을 자주 해서 벌어지는 사건이 담겨 있을 것 같다. 3) (예시 답안) 성 아래 바위산에 해골 모양이 그려진 것을 보니 으스스하고 오싷한 느낌이 든다. 제목과도 관련지어 볼 때 무서운 느낌이 든다. 4) (예시 답안) 강적 은서의 버릇을 쉽게 고치지 못해 다양한 방법을 사용한 후에야 겨우 안젤라가 슈타인 성으로 돌아갈 것 같다.
2쪽	1) ① : 으름장, ② : 응시, ③ : 인기척, ④ : 두방망이질 2) ② 3) 가르치며 ⇨ 가리키며
3쪽	1) 힐끔 : ③, 부르르 : ①, 뺨죽이 : ④, 우뚝 : ② 2) 눈에 띄었다.(눈에 띄다) 3) 각양각색
4쪽	1) ② (된소리되기) 2) [쓴살가치] 3) 붙여서 읽는 것이 쉽다. 4) 소리를 좀 더 쉽게 내기 위해서
5쪽	1) 말괄량이에다 호기심이 넘쳐나고 거짓말도 곧잘 한다. 2) 안젤라가 아버지의 수정 구슬을 훔쳐서 인간 세계에 다녀왔고, 어린 동생에게도 거짓말을 시켰기 때문이다.
6~7쪽	1) 잼마를 속여 금단의 구역에 가는 것 2) 황금빛 독수리 3) 인형이 되어 인간 세계로 가서 오십 명의 아이들을 정직하고 착한 아이로 변화시켜야 한다. 4) ②
8쪽	1) 인형이 되었고, 안젤라와 얼굴이 바뀌었다. 2) (예시 답안) 갑자기 인형이 되어 많이 놀랐고 다시는 사람이 될 수 없다는 생각에 두려웠을 것 같다. 또한 그동안 거짓말을 많이 한 것에 대해서 후회했을 것 같다.
9쪽	1) 호기심 때문에 금기를 어기게 되자 부모님께 거짓말을 자주 하게 되었다. 2) 언니처럼 칭찬받고 싶은 욕심과 부모님께 야단맞지 않으려고 거짓말을 자주 하게 되었다. 3) <'나'의 경험 그림 표현> 생략 <거짓말에 대한 '나'의 생각은?> (예시 답안) 이 책을 읽고 나서 거짓말은 정직과 믿음을 버리는 행동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정직한 아이가 되기 위해서 이제부터라도 부모님께 거짓말하지 않고 솔직하게 말하도록 노력해야겠다.